

2021학년도 수능대비

문법 엑기스 노트

국어강사 신한종 (국신T)

現 스카이에듀 인강

現 광릉한샘기숙학원 재수종합반

現 대치이강학원, 목동이강학원

前 Orbi Class 인강

前 외교, 자사고 특강

[저서] 절대(絶對)국어 시리즈

SKYEDU

#1. 문법 공부를 위한 필수! 기본용어

음운 체계

1. 모음 : 홀로 음절(소리마디)을 이룰 수 있는 독립적인 소리

하늘·땅·사람[天地人] 삼재로 기본 3글자를 만들고, 가획하여 다른 글자를 만듦

① 단모음 : 소리 내는 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모음

혀의 최고점의 위치 입술 모양	앞(전설 모음)		뒤(후설 모음)	
	평순 모음	원순 모음	평순 모음	원순 모음
혀의 높이				
높음(고모음)	ㅣ	ㄱ	ㅡ	ㅈ
중간(중모음)	ㅓ	ㅗ	ㅜ	ㅛ
낮음(저모음)	ㅗ		ㅓ	

② 이중모음 : 발음할 때,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 가는 것

* 이중모음 = 반모음 + 단모음

2. 자음 : 모음과 만나야 소리가 나는 의존적인 소리

	조음 방법	조음 위치	두 입술 [순음]	혀끝	센입천장 (경구개)	여린입천장 (연구개)	목청 사이	
안울림 소리	파열음 (공기의 흐름 막았다가 터짐)	예사소리(평음)	ㅂ	ㅍ		ㅑ		
		된소리(경음)	ㅃ	ㅑ		ㅓ		
		거센소리(격음)	ㅍ	ㅑ		ㅓ		
	파찰음 (파열과 마찰 모두)	예사소리				ㅈ		
		된소리				ㅊ		
		거센소리				ㅉ		
마찰음 (공기가 좁은 틈 사이로 새어 나감)	예사소리			ㅅ			ㅎ	
	된소리			ㅆ				
울림 소리	비음		ㅁ	ㄴ		ㅇ		
	유음			ㄹ				

음절

소리의 최소 단위로서, 국어의 음절은 반드시 모음을 필요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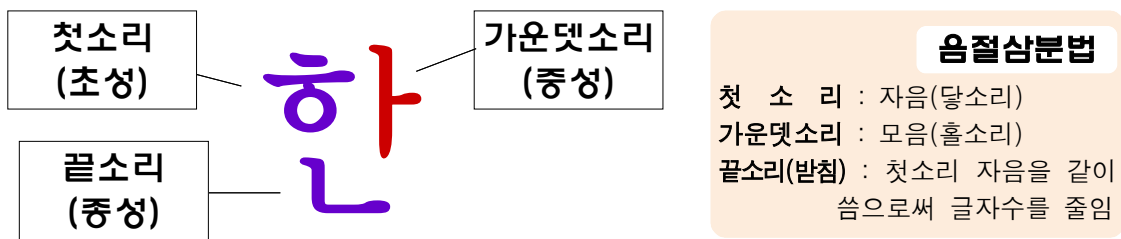
음절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, 모음의 앞뒤에 자음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. 자음은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에 붙어야 한다.

국어의 음절은 ‘아, 어, 여, 왜……’와 같이 **모음**만으로 되는 음절

‘안, 옥, 울, 열, 웬……’과 같이 **모음+자음**으로 되는 음절

‘가, 나, 교……’와 같이 **자음+모음**으로 되는 음절

‘강, 산, 달, 별……’과 같이 **자음+모음+자음**으로 되는 음절, 네 종류가 있다.



품사

형태 변화	기능	의미		예
가변어	용언	동사	움직임을 나타냄	달리다, 먹다, 자다, 공부하다
		형용사	상태나 성질을 나타냄	예쁘다, 빠르다, 검다
불변어	체언	명사	이름을 가리킴	책, 사람, 전화기, 개
		대명사	이름 대신 가리키는 말	나, 너, 그, 우리, 그것
		수사	수(數), 순서를 나타냄	하나, 둘, 일, 이, 삼
	수식언	관형사	주로 체언을 꾸밈	한, 두, 옛, 오랜, 새
		부사	주로 용언을 꾸밈	정말, 매우, 참, 아주, 꽤
	관계언	조사	문장성분들 간의 관계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줌	이/가, 은/는, 을/를, 에게, 에서, 만, 도
독립언	감탄사	감탄, 부름, 대답 등	깡, 으, 야, 어이	

용언의 활용

‘활용’이란 용언이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. 즉,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이다.

• 어간 -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으로 뜻을 지닌 줄기가 되는 부분이다.

• 어미 -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으로 어간 뒤에 붙는다.

단어의 끝에 오는 (*어말어미*)와 어말 어미 앞에 오는 (*전어말어미*)가 있다.

#2. 음운변동

[음운이란?]

: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.

- 분절음운
- 비분절음운

[음운 변동, 표준발음규정]

- 발음할 때의 음운현상을 규정한 규칙

[음운 변동의 출제 패턴 파악]

구 분		출제 패턴 파악하기
교체	1. 교체	끝소리 규칙, 된소리 되기
	2. 동화	자음동화(비음화, 유음화), 모음동화
3. 탈락		자음탈락(ㄹ, ㄷ, ㄴ 탈락), 모음탈락(ㅡ, ㅓ, 동음탈락)
4. 축약		거센소리되기(자음축약), 모음축약
5. 첨가		사잇소리 현상, ㄴ첨가

1. 교체

(1) 음절의 끝소리 규칙

: 음절의 끝소리, 즉 받침이 되는 자음이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

[끝소리 규칙]

앞	→	[입]
옷, 낫, 꽃, 바깥, 히을		[옴], [남], [꼰], [바깡], [히을]
밖, 부엌		[박], [부억]

[연음현상과 함께 이해]

>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온다면? *그냥 연음하여 발음*

예) 옷이, 옷을, 값이, 값을, 낫으로

>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온다면? *끝소리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연음*

예) 꽃 위, 옷 안, 옷 아래

(2) 된소리되기 (경음화)

: 두 개의 안울림소리(장애음)가 만나면 뒤의 안울림소리(장애음, 예사소리)가 된소리로 바뀌는데 이를 된소리되기라고 한다.

국밥 → 「국뽕」, 견고 → 「견꼬」, 없다 → 「업따」, 덧개 → 「덧깨」, 역도 → [역또], 젓소 → 전소 → [전쏘]
--

- 단, 어간말 자음이 ‘ㄴ, ㄹ’일 때 뒤 따르는 어미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, 관형사형 어미 뒤의 자음이 된소리로 나타나기도 함.

(끓고 [끓:꼬], 신고 [산:꼬], 갈 데가 [갈 떼가] 등)

2. 동화

(1) 자음동화

: 음절의 끝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,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을 닮아서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이나 같은 소리로 바뀌기도 하고,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기도 하는 현상

- 비음화(ㅁ, ㄴ, ㅇ) :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

(ㄱ)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

ㅂ, ㄸ, ㅌ → [ㅁ, ㄴ, ㅇ] / ㅁ, ㄴ 앞

(ㄴ) 유음 'ㄹ'이 비음 'ㅁ, ㅇ'을 만나면 비음 'ㄴ'으로 변화

ㄹ → [ㄴ] / ㅁ, ㅇ 앞

(ㄷ) ㅂ, ㄸ, ㅌ + ㄹ → [ㅁ, ㄴ, ㅇ] + [ㄴ]

예) 국물, 남루, 독립, 섬리 등

- 유음화(ㄹ) : 유음이 아닌 자음이 유음의 영향으로 유음으로 바뀌는 현상

'ㄴ' 과 'ㄹ' 이 만났을 때 'ㄴ' 이 'ㄹ' 로 바뀌는 현상 ㄴ-ㄹ/ㄹ의 앞이나 뒤	신라 → [실라], 천리 → [철리], 논리 → [놀리] (설측음화)
	칼날 → [칼랄], 찰나 → [찰라], 말눈 → [말룬], 실날같이 → 실랄가티 → [실랄가치] 앓는 → 알는 → [알른], 꿀는 → 끝는 → [끝른], 훑는 → 훑는 → [훑른]

<예외>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'ㄹ'을 [ㄴ]으로 발음한다.

의견란[의 : 견난], 임진란[임 : 진난], 생산량[생산냥], 결단력[결딤녁], 공권력[공권녁], 동원령[동 : 원녕]
 상견례[상견네], 횡단로[횡단노], 이원론[이 : 원논], 입원료[이뵤뇨], 구근류[구근뉴]

(2) 모음동화

: 모음과 모음이 만날 때 한 모음이 다른 모음을 닮는 현상 => 대부분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- 전설모음화 : 후행 'ㅣ'의 영향으로 선행 'ㅏ, ㅑ, ㅓ, ㅕ'가 'ㅘ, ㅙ, ㅚ, ㅜ'로 바뀌는 현상

예> 아비 → [애비], 잡히다 → 자피다 → [재피다], 먹이다 → 머기다 → [메기다]

→ 거의 대부분의 경우, 전설모음화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(3) 구개음화

: 'ㄷ, ㅌ' 등의 치조음이 'ㅣ' 모음과 결합할 때, 'ㅈ, ㅊ' 등의 구개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

예) 굳이[구지], 해돋이[해도지], 같이[가치], 붙이다[부치다]

예) 달히어 [다티어→다치어→다쳐], 굳히다[구티다→구치다]

3. 탈락 / 축약

(1) 자음탈락

- 'ㄹ' 탈락 규칙 : 'ㄹ'이 뒤에 오는 잇몸소리 혹은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
 - (합성/파생) 합성과 파생 과정에서의 'ㄹ'탈락 : 끝소리 'ㄹ'이 'ㄴ, ㄷ, ㄱ, ㅈ'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
부나비(불-나비), 부삽(불-삽), 싸전(쌀-전), 여닫이(열-닫이)
 - (용언) 활용 과정에서 'ㄹ'의 탈락 : 'ㄹ'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끝소리 'ㄹ'이 'ㄴ, ㅂ, ㅅ, ㅇ' 앞에서 예외 없이 탈락
갈다 : 가니, 간, 갑니다, 가시다, 가오 둥글다 : 둥그니, 둥근, 둥굽니다
- (용언) 'ㅎ'의 탈락 : 'ㅎ'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 앞에서 'ㅎ'이 탈락
낳은 [나은], 놓아 [노아], 쌓이다 [싸이다], 많아 [마나], 앓은 [아는], 닳아 [다라]
- (용언) 'ㅅ' 탈락 : 원래의 형태소에서 'ㅅ'이 탈락하는 현상
긋다 → 그어, 잇다 → 이어 등
- (합성) 동음탈락 : 동음 중 앞자음이 탈락하는 형상
간난 → 가난, 목과 → 모과

(2) 자음군 단순화

- 1) ^ㅁ ^ㄴ ^ㄷ ^ㄱ ^ㄴ ^ㄷ ^ㄱ ^ㄴ ^ㄷ ^ㄱ 은 첫째 자음만 남는다.
예) 값, 몫, 앉고, 외곶, 할고
- 2) ^ㄴ ^ㄷ ^ㄱ 은 둘째 자음이 남는다.
예) 삶, 읊지
- 3) ^ㄴ ^ㄷ ^ㄱ 은 불규칙적 (<보기> 활용)

(2) 모음탈락

구 분	성 격	예 시
동음탈락	이어진 동음 중 뒤의 모음 탈락	가아 → 가
'ㅏ'탈락	어미 '-어' 앞에서 탈락	푸어 → 퍼
'ㅑ'탈락	어미 '-아/-어' 앞에서 탈락	쓰어 → 써

* 동음탈락 : -아서, -어서, -어라, -아라 등이 오는 경우에 주의해서 보도록 하자.

(3) 음절의 축약

: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것. 두 소리가 이어질 때 두 소리의 성질을 모두 가진 소리로 줄어드는 현상

- 자음 축약 : 'ㅂ, ㄷ, ㄱ, ㅈ' + 'ㅎ' → 'ㅃ, ㅌ, ㅋ, ㆁ'
ex) 좋고 → [조코], 읊지 → [을치], 잡히다 → [자피다], 닫히다 → [다티다] → [다치다]
- 모음 축약 :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
ex) 오+아서 → 와서, 두+었다 → 뵘다, 되+어 → 돼, 가지+어 → [가져]

4. 첨가

[1] 사이소리 현상

[사이소리 현상이 성립하는 패턴]

0. 합성어

1. 접점에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함.
2. 발음상 조건 충족 (된소리, ㄴ첨가, ㄴㄴ첨가)

[조건1] 울림소리 + 안울림예사소리 (밤+길, 눈+사람, 코+등)

[조건2] 모음 + 안울림예사소리 (배+사공, 초+불)

[조건3] 모음 + 울림소리(ㄹ, ㄴ) (이+몸, 코+날)

[조건4] 모음 + 모음 (가외+일, 예사+일)

[ㄴ첨가와 구분!] 뒷말이 'ㅣ'로 시작될 때 (논일, 물약) - ㄴ첨가로 분류

[사이시옷까지 붙이는 패턴]

- +3. 앞 어근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(받침이 없을 경우)
- +4.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

— <보기> —

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.

1.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

- 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- (2) 뒷말의 첫소리 'ㄴ, ㄹ' 앞에서 'ㄴ'소리가 덧나는 것
- 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소리가 덧나는 것

2.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

- (1)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
- (2) 뒷말의 첫소리 'ㄴ, ㄹ' 앞에서 'ㄴ'소리가 덧나는 것
- (3)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'ㄴㄴ'소리가 덧나는 것

3.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

곳간(庫間) 셋방(貰房) 숫자(數字) 차간(車間) 뒷간(退間) 횡수(回數)

[ㄴ첨가]

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, 뒷말이 모음 'ㅣ'나, 반모음 'ㅇ'가 들어가는 이중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ㄴ, ㄴㄴ이 발음시 덧난다.

예) 숨+이불, 눈+요기, 교육+열, 발+이랑(명사)

#3. 형태소

[배우고 있는 부분, 지도 그리기]

음운 - 형태소 - 단어 - 구, 절 - 문장

○ 형태소 : 뜻(의미) 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(의미의 최소단위)

1) 자립성 유무에 따라

┌자립 형태소 - 체언, 수식언, 감탄사, 약간의 어근

| 예)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.

└의존 형태소 - 조사, 어간, 어미, 접사

 예)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.

2) 의미의 기능 여부에 따라

┌실질 형태소 - 체언, 수식언, 감탄사, 용언의 어근, 어간

| 예)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.

└형식 형태소 - 조사, 어미, 접사

 예)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.

[이형태]

: 하나의 형태소이나,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들을 이형태라고 한다.

* 음운론적 이형태 : 하나의 형태소가 음운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형태

[받침의 유무로 구분]	[모음조화로 구분]
책상 : 책상+을	갈다 : 갈+았+다
의자 : 의자+를	먹다 : 먹+었+다

* 형태론적 이형태 : 음운론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이형태

[참고] 매개 모음 '-으-'는 형태소 자격이 없다.

⇒ 형태소란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인 까닭에 '-으-'가 실질적, 형식적 기능을 해야만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. 그런데 '-으-'는 홀로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, 실질 형태소에 붙더라도 말과 말 사이에서 문법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다. 다만 발음의 편의상 들어가기 때문에 형태소가 아니다.

예) 먹다 ⇒ 먹으니, 먹으면, 먹으나

#4. 품 사

[품사의 패턴 파악]

기능 기준	형태 기준	9품사(의미기준)	필수 출제패턴 정리
체언	불변어	명사	의존명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?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의 조사사용 차이를 알고 있는가?
		대명사	인칭대명사, 미지칭, 부정칭, 재귀대명사 알고 있는가? 기본 지시대명사, 품사의 통용과 연관지를 수 있는가?
		수사	품사의 통용과 연관지를 수 있는가?
관계언		조사	격조사, 모조리 암기하고 있는가? 보조사 개념을 이해하는가?
독립언		감탄사	-
수식언		관형사	용언의 관형사형과 관형사를 구분할 수 있는가?
	부사	문장부사를 알고 있는가? 부사와 용언을 구분할 수 있는가?	
용언	가변어	동사	불규칙활용, 본용언보조용언 알고 있는가?
		형용사	동사, 형용사 구분하나?

1. 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의 출제패턴 정리

(1) 명사

- 유정명사 / 부정명사
- 보통명사 / 고유명사

※ 대로, 만큼, 뿐

- 의존명사 : 먹는 대로, 먹는 만큼 등
- 조사 : 너대로, 너만큼 등

(2) 대명사

① 인칭 대명사

- (ㄱ) 1인칭 대명사 : 말하는 이를 가리킴. 예) 나, 우리, 저, 저희
- (ㄴ) 2인칭 대명사 : 듣는 이를 가리킴. 예) 너, 자네, 그대, 당신
- (ㄷ) 3인칭 대명사 : 다른 사람을 가리킴.

[이것만 기억하자]

미지칭, 부정칭의 구분 → '아무, 아무나, 아무거나' 등을 대입하여 말이 되면 부정칭
논임과 낯슴의 재귀대명사 기억하자! 기억하자!

- 예) 저이, 그이, 이분, 그분, 어느/누구(미지칭), 아무/누구(부정칭), 자기/당신(재귀)
- 예) [미지칭, 부정칭 구분이 필요한 단어] 누구/무엇/어디

② 지시 대명사 → 관형사와 의존 명사의 합성

[이것만 기억하자]

이 : 화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, 그 : 청자에게 가까운 것 지칭, 저 : 둘 다에게 멀 때

③ 대명사 품사의 통용

-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.
-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다.
- 열쇠가 여기 있었네!

(3) 수사

① 수사 품사의 통용

- 두 명이 여기 왔다.
- 사과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졌다.

2. 관계언(조사)의 출제패턴 정리

[1] 격조사 (무조건 체언과 결합하여, 자격(문장성분)을 부여, 생략가능)

- ① 주격조사 → 주어 : ~이, ~가, ~에서(단체), ~께서
- ② 목적격조사 → 목적어 : ~을/를
- ③ 서술격조사 → 서술어 : ~이다
- ④ 보격조사 → 보어 : ~이/가 + (~되다 / 아니다)
- ⑤ 관형격조사 → 관형어 : ~의
- ⑥ 부사격조사 → 부사어 : ~에, ~에서, ~에게, ~(으)로, ~와(비교) 등
- ⑦ 호격조사 → 독립어 : ~야 (중세국어 : ~하(존칭))

[2] 접속조사 vs 비교 부사격조사 구분

-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(겹문장이면) 접속 조사이며
 바꾸어 쓸 수 없으면(홀문장이면) 부사격 조사
- 예) 나는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. ⇒ 나는 국어를 잘한다. 나는 수학을 잘한다.
- 예) 나는 철수와 비슷하다. ⇒ *나는 비슷하다. *철수는 비슷하다.

[3] 보조사 (어떤 품사와도 결합할 수 있는 조사, 생략불가)

- ① 어떤 특별한 뜻(일정한 의미)을 더해주는 조사
- ② 말하는 이의 어떤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때 쓴다.
- ③ 말의 표현을 더 섬세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.

형 태	의 미	예 문
은/는	대조(주제)	사자는 맹수다.
도	역시, 동일	그 사람도 마찬가지다.
만	유일, 단독	너만 꼭 그런 짓을 한다.
요	상대높임	잘 먹었어요.

3. 용언(동사, 형용사)의 출제패턴 정리 (1)

(1) 용언의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

- 활용 :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붙어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것
- 어간 : 활용시 변화하지 않는 부분
- 어미 : 활용시 변화하는 부분

> 용언 외에 활용하는 نوم은? **선술격 조사가 있지~**

> 피동, 사동, 강세의 접사가 붙는 말은 그 접사까지 포함하여 어간으로 본다.

- 먹이다, 먹히다, 밀치다, 깨뜨리다

어근(語根) 과 어미(語尾)

⇒ 어근은 접사의 상대 개념이며, 어간은 어미의 상대 개념이다.

예	먹	+	이	+	다	,	깨	+	뜨리	+	다
	어근		사동접사				어근		강세접사		
	└───┬───┘						└───┬───┘				
	어간			어미			어간			어미	

(2) 어미 필수 개념어 출제 패턴

① 어말 어미의 갈래

- (ㄱ) 종결 어미 - 문장을 종결
- (ㄴ) 연결 어미 - 문장이나 구를 연결
- (ㄷ) 전성 어미 - 용언이 명사, 관형사, 부사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함.
 - ┌관형사형 전성어미 : -(으)ㄴ, -는, -(으)ㄹ, -던
 - | 명사형 전성어미 : -기, -(으)ㅁ, 부사형 전성어미 : -게, -도록
 - └부사형 전성어미 : -게, -도록

② 선어말 어미

- ┌높임 : -시-
- └시제
 - ┌현재 : -는-/-ㄴ-
 - | 과거 : -었-/-았-
 - | 미래 : -겠-
 - └회상 : -더-

#5. 단어의 형성

[합성어, 파생어의 패턴 파악]

구 분		출제 개념어	기억해야 할 패턴
합성어	의미상 구분	대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nd로 연결되는 낱들 (남녀, 여담다 등) · 명사+명사→'와/과'를 넣었을 때 의미변화 없음 · 용언+용언→'고'로 연결했을 때 의미변화 없음
		종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and로 연결되지 않는 낱들 (돌다리, 국밥 등) · 명사+명사→'와/과'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다름 · 용언+용언→'고'로 연결했을 때 의미가 다름
		융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적 의미를 무시하고 완전 다른 의미로 거듭난 합성어 (참추=이전세, 광음=세월, 모순=알뒀가 맞지 않음 등)
	형태상 구분	비통사적 합성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미가 생략되고, 용언의 어간만 남은 합성어 - 부사+체언으로 구성된 합성어 - 어순이 우리말 어순과 다르게 결합된 합성어
		통사적 합성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비통사적 합성어 외 나머지

[합성어, 파생어의 패턴 파악]

구 분		출제 패턴	기억해야 할 패턴
파생어	품사 변경여부로 구분	뜻+	주로 접두사, 접미사 중 품사 못 바꾸는 낱
		품사 변경	주로 접미사 (먹+이→먹이)
	품사 변경여부로 구분	문장구조 변경	사동, 피동 접사 (이,히,리,기,우,구,추)
		문장구조 변경+품사변경	사동, 피동 접사가 결합된 형용사 중 (예 : 높다 → 높다)

#6. 문장성분

[문장성분의 패턴 파악]

문장성분		문장성분의 형태	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
주성분	주어	체언+격조사(보조사)	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주어 파악
	목적어	체언+격조사(보조사)	보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의 목적어 파악
	보어	체언+격조사	서술어 '되다 / 아니다'
	서술어	용언, 체언+격조사	서술격조사의 활용형태, 서술어 자릿수
생략불가	필수부사어	체언+격조사, 부사(~게)	서술어 자릿수와 연계하여 이해 필수적 부사어 감 잡기
	관형어	-	의존명사 또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일 때 - 단, 서술어자릿수에는 포함하지 않음
부속성분	관형어	관형사, 체언+격조사	관형어 : 용언, 체언, 관형사
	부사어	부사, 체언+격조사	부사어 : 용언, 체언, 부사

[서술어 자릿수, 필수부사어]

[1] 서술어의 자릿수 + 필수부사어

① 서술어의 자릿수

(㉠) 한 자리 서술어 : 주어 한 자리만 필요로 함.(자동사, 형용사)

예) 새가 운다. 꽃이 핀다.

(㉡) 두 자리 서술어 : 주어 이외에 또 하나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함.(타동사)

⇒ 주어+목적어/보어/필수부사어

예) 나는 물을 마셨다. 물이 얼음이 된다.

그는 서울 지리에 낫다.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.

(㉢) 세 자리 서술어 : 주어 이외에 두개의 필수적 문장 성분을 요구.

주격, 목적격 조사 이외의 격조사를 가진 문장 성분이 필요하다.

(수어 동사 - 주다, 보내다) ⇒ 주어 + 목적어 + 목적어/필수 부사어

예)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. 순이가 나를 손을 잡아끈다.

필수적 성분의 부사어

- 서술어가 되는 용언의 특성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.

(㉠) '같다, 다르다, 비슷하다, 닮다, 틀리다, ...' 등은 '체언+과/와'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. 예) 이 그림이 실물과 똑같군요.

(㉡) '넣다, 드리다, 두다, 던지다, 다가서다, ...' 등은 '체언+에/에게'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. 예) 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라.

(㉢) 수어 동사는 목적어 이외에 '체언+에게'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.

예) 순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더냐?

(㉣) '삼다, 변하다'는 '체언+(으)로'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.

예) 할아버지는 조카를 양자로 삼으셨다. 물이 얼음으로 변하였다.

(㉤) 이외에도 특정 용언은 '체언+부사격조사'로 된 부사어가 필요하다.

예) 여기다, 다니다, 주다, 부르다, 하다, 못하다, 바뀌다, 속다,
제출하다, 맞다, 적합하다, 선출하다, 어울리다, (-으로) 만들다,
일꾼다, (-이라) 이르다, (-와) 의논하다, (-에서) 살다

#7. 문장의 형태, 의문문, 부정문

[문장의 형태 패턴 파악]

문장성분의 형태		기억해야 할 패턴
흘문장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흘문장 : 주어도 1개, 서술어도 1개 - 겹문장 :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부분은 주어와 상관없이 서술어가 2개 이상임. · 서술절이 안계있는 문장만 서술어가 1개임. 주어는 2개.
겹문장	안은-안긴문장	<p>[안은-안긴 문장에서 안긴문장 절의 종류 파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먼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놈을 찾자! (용언, 서술격조사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그 놈이 명사형태(-음, -기)면 명사절! ·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절! · 용언을 수식하면 부사절! · 사람말을 인용했으면 인용절! - 서술절은 외워라! '고개리가 코가 길다'의 형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서술어가 '-되다/-아나다'인 경우만 예외 (주어보어의 구조므로)
	이어진문장	<p>[이어진 문장의 종류 파악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: and, but, or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: 대등하게 이어주는 연결어미 -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: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외 나머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결어미를 통해 실현 :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

#8. 사동, 피동, 시제, 높임

[사동, 피동, 시제, 높임의 출제패턴]

구 분	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			
사동에서 기억할 패턴	<p>[사동을 구분하는 방법, 만드는 방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형 : 접사 이, 히, 리, 기, 우, 구, 추 - 장형 : -하게 하다 	<p>[사동에서 유의할 패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동문의 중의성 : 직접사동 vs 간접사동 - 생체일부 표현 유의하기 · 나는 머리를 숙였다. 		
피동에서 기억할 패턴	<p>[피동을 구분하는 방법, 만드는 방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형 : 접사 이, 히, 리, 기, 되 - 장형 : -어지다 	<p>[사동에서 유의할 패턴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중피동 : 단형피동과 장형피동의 결합형태 - 사동접사 + 장형피동은 이중피동이 아님 		
시제에서 기억할 패턴	<p>[절대시제, 상대시제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절대시제 : 발화시를 기준으로 판단 - 상대시제 : 사건시를 기준으로 판단 * 발화시, 사건시 개념 알아두기 	<p>[시제를 나타내는 방법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어말어미 사용 - 관형사형 전격어미 사용 - 시간부사어 사용 		
높임에서 기억할 패턴	높임의 종류	주요 출제 패턴		중세국어
	주체높임	주어	선어말어미, 조사, 특수어휘	선어말 어미 有
	- 간접높임	높임대상의 소유물	선어말어미만 사용	
	객체높임	목적어, 부사어	조사, 특수어휘	선어말 어미 有
상대높임	상대방(청자)	종결어미, 보조사 -요 (저, 말씀)	선어말 어미 有	

#9. 올바른 문장표현

[올바른 문장표현의 출제패턴]

구 분	기억해야 할 출제 패턴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중의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) 나는 사랑하는 친구의 오빠를 만났다. ○ 주어와 목적어 범위에 따른 중의성 예) 나는 호준이와 윤석이를 놀렸다. ○ 비교 대상의 중의성 예) 아버지는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신다. ○ 병렬 구문의 중의성 예) 나는 사과와 감 두 개를 골랐다. ○ 부정문의 중의성 예) 학생들이 다 안 왔다. ○ 진행과 완료의 중의성 예) 그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.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어법에 맞는 표현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장성분 갖추기 예) (부사어의 생략)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, 때로는 순응하기도 한다. 예) (서술어의 생략) 계곡에서는 수영과 밥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. 예) (주어의 생략)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하고,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. ○ 문장 성분간의 호응 예) (주어-서술어) 당부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. 예) (부사어-서술어) 반드시 먹지 마세요. 절대로 먹어야 합니다. 비록 ~일지라도 ○ 이중피동

#10. 중세국어

[제자원리의 출제패턴]

1. 초성의 제자 원리

구분	기본자 (상형)	가획자 (가획)	병서자	이체자 (이체)
어금닛소리	ㄱ	ㅋ	ㄲ	ㅇ
혓소리	ㄴ	ㄷ, ㅌ	ㄸ	ㄹ
입술소리	ㅁ	ㅂ, ㅍ	ㅃ	
잇소리	ㅅ	ㅈ, ㅊ	ㅉ	ㅊ
목소리	ㅇ	ㅅ, ㅆ	ㅈ	

- 병서자 : 나란히 쓴 글자
 - * 각자 병서 : 된소리(쌍자음)
 - * 합용 병서 : 다른 자음끼리 결합 (ㅃ, ㅆ, ㅉ, ㅊ 등)

2. 중성의 제자 원리

구분	기본자	초출자(기본+기본)	재출자(초출+)
天(양성 모음)	·	ㅏ, ㅑ	ㅓ, ㅕ
地(음성 모음)	—	ㅗ, ㅛ	ㅛ, ㅜ
人(중성 모음)		·	·

3. 중성의 제자 원리

- 중성부용초성 : 초성을 다시 중성에 사용함.
- 8중성, 7중성법을 거쳐 현재는 중성부용초성

[중세국어의 특징 관련 출제패턴]

1. 초성의 제자 원리

- ①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모음
- ② 어두 자음군 표기 **예** ㅼ들(15C)>똥을, ㅼ메(15C)>쌈에
- ③ 모음 조화 철저. **예** ㅅ조롱(15C)>자를
- ④ 구개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. **예** ㅼ디(15C)>펴지, 고태 > 고쳐
- ⑤ 원순 모음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. **예** 스물(15C)>스물, 무지개 > 무지개
- ⑥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. **예** 니르고져(15C)>이르고자
- ⑦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
- ⑧ 현대 국어와 다른 조사 사용 → 현대국어 격조사 파악으로 승부를 본다.

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'에' 사용	예 등국에 달아(15C)> 중국과 달라
'동등 비교'의 의미를 가지는 비교격 조사 '와로' 사용	예 文문字宗와로(15C)> 문자와는
주격 조사가 자음+ '이' / 모음+ 'ㅣ' / '∅'	예 흙·배(15C)> 할 바가, 뉘 > 산이, 새미 > 샘이
목적격 조사 을/를, 올/를	예 我后를 / 天下를

- ⑨ 현대 국어와 다른 어휘의 의미

의미 변화	예 어린: 어리석은(15C) > 나이가 적은, 어엿비: 가엿게(15C) > 불쌍하게, 예쁘게
	예 높: 사람(15C) >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
	예 영감: 당상관 이상의 높은 벼슬하는 사람 > 남자 노인을 두루 가리키는 말

- ⑩ 이어 적기(연철) 원칙.

이어 적기(연철)	끊어 적기(분철)	거듭 적기(중철)
말쌈미	말쌈이	말쌈미

- ⑪ 받침 표기

중성부용초성	8 중성법	7 중성법	중성부용초성
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	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	ㄱ, ㄴ, ㄹ, ㅁ, ㅂ, ㅅ, ㅇ	모든 자음을 중성에 사용
곶	곶	곶	곶

- ⑪ ㅎ 중성체언
- ⑫ ㄱ 중성체언
- ⑬ 높임법의 변화
 - 주체높임 선어말 어미
 -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
 -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
- ⑭ 병의 변화 **예** 새빙->새우, 더빙->더워
- ⑮ 명사형 어미 '움/옴' **예** 쑤메 > 쓰+움+에

#11. 로마자 표기 & 외래어 표기

[제자원리의 출제패턴]

1. 로마자 표기법

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.

1. 단모음

ㅏ	ㅑ	ㅓ	ㅕ	ㅗ	ㅛ	ㅜ	ㅠ	ㅡ	ㅣ	ㅞ	ㅟ	ㅚ	ㅜ
a	eo	o	u	eu	i	ae	e	œ	wi				

2. 이중 모음

ㅑ	ㅓ	ㅕ	ㅠ	ㅞ	ㅟ	ㅚ	ㅜ	ㅟ	ㅚ	ㅜ
ya	yeo	yo	yu	yae	ye	wa	wae	wo	we	ui

제2항 자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.

1. 파열음

ㄱ	ㅋ	ㆁ	ㄷ	ㅌ	ㅌ	ㅍ	ㅂ	ㅃ	ㅍ
g k	kk	k	d t	tt	t	b, p	pp	p	

2. 파찰음 3. 마찰음 4. 비음 5. 유음

ㅈ	ㅉ	ㅊ	ㅅ	ㅆ	ㅎ	ㄴ	ㅁ	ㅇ	ㄹ
j	jj	ch	s	ss	h	n	m	ng	r, l

[붙임 1] ‘ㄱ, ㄷ, ㅂ’ 은 모음 앞에서는 ‘g, d, b’ 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‘k, t, p’ 로 적는다.

[붙임 2] ‘ㄹ’ 은 모음 앞에서는 ‘r’ 로,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‘l’ 로 적는다.

단, ‘ㄹㄹ’ 은 ‘ll’ 로 적는다.

*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되,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
2. 외래어 표기법

• 외래어 표기의 원칙

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.

제2항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.

제3항 받침에는 ‘ㄱ, ㄴ, ㄹ, ㅁ, ㅂ, ㅅ, ㅇ’만을 쓴다.

제4항 파열음*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,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.